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⑩신혼 첫 단추를 잘 꿰라 (하)

지난주에는 신혼들이 꼭 지켜야할 경제적인 통합과 지출관리에 대해 알아봤다. 어떻게 투자하느냐보다 소비를 억제해 얼마를 투자할수 있느냐가 신혼부부가 자산을 형성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잉여 투자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방법과 위험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지출관리를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했다면 투자에 앞서 인생 전반에 걸친 재무계획을 세워야 한다. 흔히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재무목표에 맞지 않는 재테크는 자산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혼의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무목표는 우선적으로 내집마련이며, 중기적으로 자녀 교육자금 마련, 장기적으로 부부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들 수 있다.

부부 머리 맞대고 인생 자금계획 짜라

자신의 수입에 맞는 정기·정액 금융상품 골라야

내집마련·자녀 교육자금 등 구체적 재무계획을

따라서 이러한 큰 규모의 재무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신들만의 재무계획을 추가할 경우 효율적인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재무계획은 되도록 구체적인 시기와 자금 규모를 예측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단 3년 후에 전세자금을 3천만원 만들어 큰 평수로 옮기고, 7년 후에 1억원을 추가해 광주 상무지구에 주택을 마련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재무계획을 세웠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세워야한다. 신혼인 경우 자산이 많지않아 목돈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 정기·정액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하나의 금융상품에 모든 자산을 적립하기보다 철저한 분산투자를 통해 합리적인 위험 범위 안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혼부부를 상담해보면 모든 월 잉여자금을 정기적금에 붓거나 적립식 펀드에 올인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개인적인 재무목표에 따라 포트폴리오는 달라지겠지만 정기적금·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기반위에 성장주펀드·배당주펀드·가치주펀드와 같이 투자위험은 있지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에 분산해 투자하는 것이 신혼의 포트폴리오로 적합하다.

또한 이러한 투자전략과 더불어 자신들에게 맞는 청약전략과 주택구입전략,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절세전략을 병행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투자전략을 세울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재무계획을 세우고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모은 재산이 가족 구성원의 질병과 사고로 인해 한순간 날아갈 수 있으므로 보장성 보험 가입을 통해 신체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적 위험에는 소득원 사망에 따른 위험과 질병·사고에 따른 과다한 치료비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망에 대한 위험은 생명보험이 유리하고 질병·사고에 따른 위험은 손해보험이 유리하다.

신혼의 입장에서 이러한 보장성 보험료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해 지금부터 지불하는 비용이므로 과다한 보장성 보험은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에 대한 위험은 종신보험보다는 일정기간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보장받고, 질병·사고에 따른 위험은 주계약이 낮은 실손보상형의 손해보험을 활용한다면 비용은 낮추고 보장범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NV파이낸셜클럽 팀장〉

지역기업 '氣살리기' 전국 대장정 나선다

정세균 산자부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기업들의 기(氣)를 살리기 위해 전국 대장정에 나섰다.

산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12일 거제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울산, 인천, 천안, 대전, 평창, 당진, 여수, 목포, 대구 등 전국의 산업현장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현장 경기를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를 청취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지표로 파악하기 힘든 애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날 거제의 대우조선해양과 중소기업인 대우CIT를 방문, LNG선과 세계 최대의 해양플랜트를 건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선소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산자부는 또 기업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현재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사랑운동을 전국 16개 광역단체로 확대해 제1회 기업사랑협의회 전국 네트워크 총회를 다음달 중순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도 보험처리 된다

차주가입 보험서 보상 받게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기본계약 가입자는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대리운전사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 가입을 장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리운전 이용이 보편화하고 있으나 보호장치가 없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 주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손해는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차주인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주인이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족한정운전특약 등 운전자를 제한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기본계약 가입자는 내달부터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리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대리운전자 8만3천명 가운데 62% 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전원마을 페스티벌'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에서 행사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이 각 지자체가 마련한 22개 전원마을 모형과 관련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농림부 주최로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각 지자체별로 입주 희망자 접수도 받는다. /연합뉴스

소득격차 더 벌어졌다

상하위 20% IMF때보다 두배이상 격차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대상자 가운데 상·하위 20% 계층의 소득격차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때 보다 두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중 상위 20%가 벌어들인 소득금액이 전체의 69.6%를 차지, 1.9%에 그친 하위 20%의 36.6배에 달했다.

이 같은 소득격차는 IMF 관리체제인 1998년의 17.6배 보다 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위 20%가 부담하는 세금이 전체의 90.1%(결정세액 기준)를 기록, 1998년의 83.3% 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하위 20%가 내는 세금의 비중은 0.8%에서 0.2%로 오히려 낮아졌다.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상위 20%의 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하위 20%(8.0%)의 4.9배에 달해,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2년(4.7배)보다 상·하위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과중한 업무 비해 낮은 수입"

직장인 96%가 "스트레스"

상당수의 직장인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량에 비해 낮은 수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9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6%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원인(복수응답)으로 '업무량 대비 낮은 수입(50.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과도한 업무(39.5%)', '상사와의 갈등(25.3%)'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한은 금통위, 콜금리 4.5%로 동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며 "(북핵사태가) 어떤 쪽으로 발전할 지 몇 달 동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했지만 "경기가 애초 기대보다 다소 약했다"고 말해 경기 비관론을 일부 시인했다.

이 총재는 이날 콜금리를 연 4.50%로 동결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핵실험 발표 직후 금융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다가 시간이 좀 더 걸렸다"며 "북한의 핵실험을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와 전혀 다른 일로 봐야 할지 과거부터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좀 더 큰 사건인지 볼지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큰 우려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북핵문제와 관련해 금융시장이) 상당한 내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경기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금리를 금방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해 금리기조를 급격하게 바꿀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은행들, 위험성 높은 기업 대출 기피

주택담보 위주 안전한 가계대출 선호

가계대출, 기업대출의 2배

韓銀, 2001년이후 대출액 비교

2001년 이후 은행의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액이 기업대출 증가액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설비·운전자금으로 돈을 꿔주는 것보다 주택담보 위주의 안전한 가계대출 영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15조3천억원에 달한데 비해 같은 기간 기업대출 증가액은 116조5천억원에 그쳤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은행의 전체 대출증가액 331조8천억원 가운데 65%를 가계대출이 점한 것이다.

2000년말의 경우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89조5천억원으로 당시 가계대출 잔액 115조7천억원을 크게 웃돌았으나 이후 가계대출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올해 9월말 현재 기업대출 잔액은 306조원으로 가계대출 잔액 331조원에 못미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가계대출 증가액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152조7천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으며 나머지는 신용대출이 차지했다.

기업대출 중에는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136조6천억원인 반면 대기업 대출은 오히려 17조2천억원 감소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자·배당소득 연 4천만원 이상

'자산가' 2만3천명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만 연간 4천만원을 넘어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한 인원이 2만3천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2004년 귀속분)때 2만3천184명이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을 넘은 것으로 신고했다.

이는 전년의 1만9천357명보다 19.8%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총 4조9천42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1천300만원에 달했다.

금융소득 규모별로 보면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4천625명, 5천만~8천만원 7천505명, 8천만~1억2천만원 3천929명, 1억2천만~5억원 이하가 5천528명이었다. /연합뉴스

철도공안사무소 직원 공사전환 과정

"수천만원대 로비자금 조성"

건설교통부 산하 철도공안사무소 직원들이 2004년 철도청의 공사 전환 과정에서 건교부 조직으로 편입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수천만원대의 로비자금을 조성해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사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무조정실로부터 통보받고 감사를 벌여 직원들의 비리 내용을 확인하고도 관련자 5명 중 로비를 주도한 1명을 의원면직시키고 나머지 직원들은 경고나 주의를 주는데 그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공안사무소 직원 등 비위 조사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 철도공안사무소장 A씨는 2004년 철도청의 공사 전환 과정에서 철도공안 조직을 건교부로 이관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관계 기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조성 지시 등 사실이 드러 났다. /연합뉴스

대기업 신입 연봉 3,088만원

하반기 채용 86개社 조사

금융업종 3,352만원 최고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거나 조만간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인 대기업들의 신입직 평균연봉은 3천8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현재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거나 조만간 채용을 진행할 예정인 대기업 8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의 초봉이 평균 3천35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석유·화학(3천214만원), 기계·철강(3천207만원), 건설(3천17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공기업 9곳의 신입직 연봉은 평균 3천78만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마트앤마트	전단제작 출력및 인쇄소관리 마케팅기획 분석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14	010-4618-3777
한샘인테리어 상무점	한샘인테리어 광주 상무점 직원모집	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14	062-385-4800
㈜크라운제과 광주영업소	정규직 경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800	10/14	062-952-0853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정규직 비파괴검사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16	062-369-0790
㈜한진기공	기계설계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0/20	011-649-9111
GM대우자동차판매	2006 정규직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3000~3200	10/20	062-942-9234
㈜좋은만남 선우	(주)좋은만남선우 광주센터 커플매니저 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0	02-2022-2046
㈜석영브라이스톤	반도체영업/영업관리(Inner sales)/반도체물류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0	02-3218-1627
㈜연수당복분자주	생산직 남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1	062-943-3788
동하코퍼레이션㈜	해외영업/영업관리 관리자 1명(영어필수)	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21	062-971-4725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2006년 분야별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3	011-649-4009
㈜핫시스	기술영업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3	031-495-4380
곽영일외국어학원	수강생 상담 및 홈페이지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4	062-234-0582
㈜KTES	Flex 기반 LMS솔루션 개발(병특가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4	062-371-148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경제계 인사

◇대주그룹
▲대한상선(주) 관리이사 오영내